

불교의 전통적인 정례문화인 화장은 불자들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확산되는 추세다. 서울시만 하더라도 96년 29.0%였던 화장률이 97년 30.8%, 98년 36.5%, 99년 41.9%, 2000년 49.5%로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고 전국적 화장률도 96년 23%에서 2000년에는 30.7%로 올랐다. 이러한 때에 불교적 입장에서 사찰의 영탑원 조성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지적한 논문이 발표돼 관심을 끈다.

사찰 영탑원, 형태·건립위치 도량 공간구성 고려해야

심재학씨 '대각사상' 5집서 설계기준 제시

심재학(공간연구원 '정토' 원장)씨는 최근 발간된 <대각사상> 5집(대각사상연구원, 연간)에 기고한 논문 '불교사찰의 영탑원(靈塔園) 도입과 설계기준'에서 "최근 들어 화장 문화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영탑원 조성의 황금 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거나 자연환경과 사찰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대단위로 조성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불교계가 앞장서서 바람직한 장례문화와 영탑원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불교적 개념을 바탕으로 한 형식의 장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화장문화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가운데 영탑원은 기존 사찰의 공간구성을 바탕으로 조성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 9월 개원한 해인사미타원 모습.

일반인 영탑, 스님 부도탑 모방은 잘못

과다한 면적에 무절제한 조성 문제

심씨에 따르면 현재 사찰에 도입되고 있는 영탑원 조성과 관련, 가장 큰 문제점은 과다한 면적에 무절제하게 조성된다는 것과 무분별한 형식이다. 그렇다면 영탑원은 어떤 개념과 기준을 갖고 조성해야 할까? 심씨는 먼저 "영탑원은 생즉사(生即死), 사즉생(死即生), 열반이라는 불교적 의미를 구체화한다는 개념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기존 사찰의 공간구성이나 배치형식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위치가 결정되고 공간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했다.

즉 규모가 작은 사찰에서는 기존의 지장전이나 명부전에 적합한 규모의 납골당과 납골탑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별도의 장소를 마련할 때도 사찰 본래의 공간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영탑의 유형 또한 스님들의 부도탑을 기본양식으로 하되 부도탑과 형식적으로 판이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조형적 형태를 달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씨는 "부도탑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스님들의 묘

인 부도탑을 일반인들의 유해를 안치한 영탑에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강조했다.

심씨는 "불교적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영탑의 형태를 고안하고 영탑원의 공간구성이나 배치양식을 결정함으로써 기존의 화장 및 납골에 대한 이미지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며 "영탑원은 사회에 논란이 되고 있는 납골당과 추모 공원 등의 대형화와 고가의 분양제를 지양하고 불교신자와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차원에서 운영돼야 하며, 봉사활동(인종봉사, 염불봉사 등)을 통한 불교 포교를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씨가 2001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출된 시설면적을 보면 500㎡ 면적인 경우 설치할 수 있는 영탑은 약 100기이다.

화장된 유골의 부피 및 납골용기의 크기를 기준으로 0.09㎡를 단위 면적으로 하고 500㎡에 적용할 경우 조정면적 20%를 제외한 400㎡가 영탑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라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nia.com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지건길)은 구랍 24일부터 2월 16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유창종 기증 기와 전돌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특별전은 평생 수집한 1,873점의 와전을 이집집이 기증한 유창종 서울지검장의 뜻을 기리고자 마련됐다. 아울러 동아시아의 와전문화 변천을 한 눈에 조망해 볼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와 가운데 불상이 새겨져 있는 통일신라시대의 '보살문수막새'.

이번 전시에는 통일신라시대의 보살문수막새를 비롯해 임신된 600여점의 기와 전돌이 소개된다. 모두 3부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우리나라 · 중국 · 일본 및 동남아시아의 와전(瓦塼) 문화를 일별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1부에서는 한국와전을 시대와 지역에 따라 비교 전시해 우리 와전의 변천상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통일신라의 '보살문수막새'와 '귀면와 와범(鬼面瓦 瓦范)'은 발견례가 적은 희귀품이며, 발해의 수막새와 명문와(銘文瓦) 또한 일반에게 소개된 예가 드물어 관심을 끈다.

2부의 중국와전 전시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기증자의 체

계적인 유물수집에 힘입은 바가 크다. 전국시대의 도청문 반원막새를 비롯하여 진·한(秦漢)대부터 명·청(明清)대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를 대표하는 기와들이 전시된다.

3부의 일본과 동남아시아 와전 역시 국내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일품들이다.

이번에 기증한 유창종 서울지검장은 '기와 검사'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30여년 동안 와전의 수집과 연구에 각별한 애정을 쏟아 왔다. '기증을 위한 수집'이라는 기증문화의 새로운 장을 연 유창종 서울지검장은 문화재 수집과 기증에 대

유창종씨 기증 기와·전돌 특별전

'보살문수막새' 등 600여점 공개

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전 개막일인 구랍 23일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앞으로도

국립중앙박물관의 와전 수집품이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도록 돕겠다"는 기증자의 높은 뜻을 기리기 위하여, 용산 새 박물관에 '유창종실(가칭)'을 설치할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nia.com

첫번째 찬불가음반 내놔

불교소년소녀합창단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의 첫 번째 앨범.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이 첫 번째 음반을 선보였다. 이번 앨범에는 타이틀 곡 '얼마나 닮아야 겨울 마음 담을까'를 비롯해 '홀로피는 연꽃', '찬미의 나라', '우리도 부처님 같이', '이별의 노래', '초파일 송가', '불공을 마치며',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등 총 18곡이 수록돼 있다. 황학현 단장은 "어머니 합창단의 연주로 이미지가 굳어 버린 성인 찬불가를 어린이 특유의 미성으로 음반화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며 "천진난만한 선재동자들의 음성으로 듣는 찬불가는 또다른 환희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기획 취지를 설명했다. (02)725-7527



◇송림사 금동제사리장치(보물 325호). 보물 325호인 경북 칠곡 송림사오층전탑 금동제사리장치가 1년여의

송림사 금동사리기 제모습 찾아

1년간 보존처리작업...일반 공개

보존처리 끝에 제 모습과 색을 되찾았다.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실은 24일 "집 모양으로 만든 전각형 사리장치의 기단(건축물의 바닥부분)과 난간 일부가 파손되거나 흔들리는 것을 복원하고 부식된 연판(蓮板)의 녹을 제거했다"며 "해충에 의해

다. 금동제사리장치는 1959년 송림사 오층전탑(보물 189호) 해체보수 때 탑 2층에서 거북 모양의 돌로 만든 합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체 높이는 14.2cm. 특히 함께 발견된 호리병 모양의 녹색 사리병과 유리잔처럼 만든 녹색 사리용기는 그와 비슷한 예를 찾기 힘든 귀중한 유물이다. 보존처리를 마친 금동제사리장치는 국립대박물관으로 옮겨 일반에 전시될 예정이다.

권형진 기자

원로시인 박희진 시비

22일 봉인사서 제막

구랍 22일 남양주 봉인사 부도밭에서 아주 조촐한 시비 제막식이 거행됐다.

시비의 주인은 현재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박희진씨. 느낌표를 형상화 한 시비는 납골함을 안치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박시인이 타계하면 유골을 이 시비에 봉안할 예정이다.

이 시비는 제자들이 마음을 모아 세웠고 박시인은 그저 그 일에 동참했을 뿐이다. 마치 남의 일을 하듯.

서울대 조소과 신행중교수가 시비의 형상을 설계했고 충남 온양에서 석재상을 하고 있는 공병대씨가 비



◇'박희진 시비 제막식'이 남양주 봉인사에서 열렸다. 사진 오른쪽에서 다섯 번째가 박희진씨.

제작을 맡았다. 비신에 박시인의 시 두편을 앞뒤로 새겼는데 서예가 유형재씨의 글씨다. 자리를 제공한 제자는 봉인사 주지 적경스님. 비신의 전면에는 '묘비명'이란 4행시가 적혀 있다.

이 몸은 생전에도 보이지 않게 살기를 원했고 그렇게 살았으니 나의 시행과 시행 사이

해와 달 별들이 보이면 그 뿐!

제막식에 문인은 단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초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시인은 이유를 짧게 밝혔다.

"나 스스로 묘비에다가 '보이지 않게 살기를 원했다'고 적었는데 이 시비인들 누구에게 보이겠는가?"

임연태 기자 yllim@buddhania.com